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ovatek calls on owners as it starts fresh hunt for LNG newbuildings

러시아의 Novatek이 Global 선주들을 불러모은 뒤 6척의 신조 LNG선에 대해 용선을 문의했다고 보도됨. 이에 따라 확정발주분 4척과 옵션분 2척의 물량이 발주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쇄빙형 LNG선의 경우 최대 3척 정도 필요로 할 전망이며 총계약금액은 1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MSC firms up \$1.63bn orders for 13 containerships at CSSC yards

세계 2위 컨테이너선사 MSC가 중국국영조선소 CSSC에 16,000TEU급 컨테이너선 13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LNG-Ready선이며 총 계약규모는 16.3억달러라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1.5억달러수준이며 납기는 2023~24년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Opec+ Easter egg: Confidence in oil demand recovery bolsters VLCC outlook

Opec+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 뒤에는 원유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숨어있다고 보도됨. 총 214만배럴(일산) 규모의 증산이 5~7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증산 발표에도 유가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됨. 이는 VLCC 중심의 유조탱커 시황 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easpan continues buying spree with two small boxships with charters attached

컨테이너선 선주사 Seaspan Corp가 scrubber탑재형 8,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두고 구입 문의 중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Global 컨테이너선사와 장기용선 예정이라고 보도됨. Seaspan은 지난해 12월 이후 총 41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거나 구입하면서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Suez Canal expects to be 'back to normal' from Monday morning

월요일 기준으로 수에즈운하 내 통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도됨. 지난 23일 2만TEU급 컨테이너선이 좌초되어 6일간 운하 통행을 막은 상황이 해결되고, 이로 인해 정체를 빚었던 446척의 선박이 운하를 모두 통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한국가스공사, LNG선 수리 국내조선소에 위탁

한국가스공사가 운용 중인 LNG운반선 중 정기수리 물량 12척을 HSG성동조선해양과 삼강 S&C가 맡는다고 보도됨. 정기 입거수리는 운항 중인 선박을 5년에 2회 정기적으로 조선소에서 검사 및 수리하는 계획이며 12척에 대한 계약규모는 총 600억원이라고 보도됨. (선박 뉴스)